

3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788.88 (-123.49)		838.41 (+0.76)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3.788 (+0.033)		1375.40 (+2.90)

D램 공세에 관세 확대… 삼성·SK ‘고군분투’

〈中〉

〈美〉

中 창신메모리 ‘LPDDR6’ 양산
상반기 매출 29조 전년비 874%↑
美 반도체 관세, 완제품까지 확대
현지생산 확대 압박 방안 검토중

최근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여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핵심기업의 최신 D램 양산과 미국의 무역장벽 확대 기조 등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상반기 매출이 9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최신 모바일 D램 양산까지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서버와 노트북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고 현지생산 규모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XMT 매출 9배 급증…최신 D램 양산까지

30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전일 LPDDR6(저전력 D램) 양산에 들어갔다. 샤오미는 오는 9월 출시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에 CXMT의 LPDDR6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LPDDR6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최신 저전력 D램이다.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맞춰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기도

3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서울네팔법당에서 네팔 대홍수 희생자 유족 및 네팔 이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CXMT의 성장세는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회사가 공개한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1503억1000만원(약 2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4% 급증했다. 순이익은 776억500만원(약 15조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이달에는 텐센트를 제치고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CXMT의 추격은 범용D램을 넘어 최신

모바일 D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LPDDR6 개발에서 앞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나노급 LPDDR6를 개발하고 올해 초 공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LPDDR6 개발을 완료했다.

기술 격차도 남아 있다. CXMT는 LPDDR6의 생산 공정과 수율을 공개하

지 않았으며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용 고부가 메모리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XMT가 LPDDR6 양산에 이어 샤오미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최신 D램 시장에서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직주근접 유리… 입지, 압구정 못지않아”

부동산 현장 르포

1만3000가구 공급 구상 탄천물재생센터 가보니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나와마루공원을 따라 걸으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나온다. 주변에는 개포·일원동 주거지를 비롯해 학교와 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탄천 건너편으로는 송파구 아파트 단지와 롯데월드타워도 시야에 들어왔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경쟁선을 달리는 가운데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안이 새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구상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전 장소와 공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센터를 이전하고 이곳에 가칭 ‘용납권 청년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센터 부지는 약 39만3000㎡ 규모다. 서울시는 부지 절반가량에 청년주택을 배치하면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뒤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성채리 수습기자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까지 연계하는 복합개발 구상이다.

◆강남 직주근접 갖춘 39만㎡

입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청역과 학여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서역도 가깝다. 강남 업무지구와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 쉽고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은 앞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곳이라면 탄천 일대는 이미 교통과 생활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며 “강남권 일지리와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직주근접 측면에서도 유리하

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으로 쓰이는 용산보다 기피시설에 가까운 물재생센터를 주거·산업단지로 바꾸는 편이 토지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원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빠진다면 입지는 압구정동 못지않다”고 말했다.

탄천 카드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34년 이전·지하화 계획이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루 최대 90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시설을 옮길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8면에 계속〉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m-커버스토리

메가특구법·800조+ α 예산 ‘격돌’

여야, 내일 정기국회 개회

여야가 오는 9월1일부터 10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 부동산공급 확대 법안 등 쟁점 법안, ‘800조원 + α (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법안 처리, 대정부질문 및 연설 등 국회의 한 해 농사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정부의 역점 사업을 뒷받침할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 하겠다. 국민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자 민주당의 성공이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을 ‘부동산 폭정’과 민생안보 파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자는 목표 아래 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정보수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민생·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국회에서 총 800조원+ α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지형 양극화 대응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확충해 뒷받침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李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내년 금리 3.5% 유의해야 할 것”
- ▲野, 이정부 개각에 “李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한 것…대단히 실망”



- ▲나경원 “ETF 수혜 기업에 이찬진 주 재직” 이 의원·이찬진 사퇴 촉구 /사진 뉴시스
- ▲윤상현 “국힘, 부정선거론 나락 빠져있어…공개 대토론회 개최하자”

- ▲이진숙 ‘광주사태는 거의 폭동’ 영상 공유…與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친한” 김종혁, “朴 전 대통령, 통합 말할 자격 충분하지 않아”